

“2020 광주비엔날레는 인류 지식의 총합... 전 지구적 연대 펼칠 것”



공동예술감독 데프네 아야스·나타샤 진발라

5·18 40주년 맞아 전 세계 저항 역사 기획 준비 중
새 작가·새 작품·다채로운 역사 시각 보이는 전시
퍼포먼스·출간 플랫폼 있는 역동적 프로그램 구성

“이번 비엔날레는 예술적 접근은 물론이고 과학적 방법론 등을 통해 ‘인류가 가진 지식의 총합’을 보여주는 전시로 꾸밀 생각입니다. 인공지능 등이 대세가 된 상황에서 과연 우리는 어디를 향해 나아가야 하고 어떤 세계에서 살고 싶은 지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내년 9월 개막하는 2020 광주비엔날레 공동예술감독으로 14일 선임된 이스탄불 출신 큐레이터 데프네 아야스(Defne Ayas·42)와 인도 출신 나타샤 진발라

(Natasha Ginwala·33) 큐레이터는 기자회견에서 “광주비엔날레가 전 세계 비엔날레 역사에서 얼마나 중요한 지 잘 알고 있다”며 “베를린, 베니스, 카셀 등 크고 작은 비엔날레에서 큐레이팅한 경험을 바탕으로 새로운 작가들에게 새로운 작품을 의뢰하고 다채로운 역사적 시각을 보여주는 전시를 기획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2020년이 ‘광주민중항쟁 40주년’이라는 사실을 잘 인지하고 있다고 밝힌 두 사람은 “5·18을 비롯해 전 세계 저항의

역사를 소개하는 기획도 준비 중”이라고 강조했다.

“저항의 역사 한가운데 있는 광주에서 전시를 기획하는 게 큰 의미가 있습니다. 광주는 집단 지성을 이야기하기에 가장 좋은 곳입니다. 저항의 전략을 논하기 적합한 곳이기도 하죠. 오늘날 전 세계에서 국가의 부당한 감시나 국가 폭력이 일어나고

있어요. 광주의 이야기와 함께 동시대적인 관점에서 전 세계 저항 활동 등을 생생하게 소개하는 전시도 구상할 계획입니다.”

(데프네 아야스)

“광주항쟁과 관련해 며칠 전 열린 재판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시민들이 정의가 구현되길 기다리고 있다는 것도 압니다. 외부인의 시선으로 광주의 역사를 배우는 게 중요하죠. 저희 두 사람이 태어난 터키와 인도를 비롯해 전 세계가 비슷한 투쟁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 예술가들은 부당함에 맞서 저항해왔습니다. 5·18기록관에 다녀왔는데 그곳의 자료들은 존경할 만한 노력의 결과물들이었습니다. 전 세계 많은 작가들과 그 자료들을 공유하고, 또 각국의 사례들을 다양한 형태의 전시로 만들어내고 싶습니다.”(나타샤 진발라)

13, 14일 5·18 기록관과 양림동 등을 방문, 광주 공간에 대한 리서치 작업을 시작한 두 사람은 용봉동 비엔날레전시관 뿐 아니라 ‘관람객, 광주시민의 사회적 삶과 동떨어지지 않는’ 광주 시내 곳곳도 전시

장으로 활용할 방침이다.

두 사람은 기존 형태의 전시와 함께 퍼포먼스, 출간 플랫폼으로 이어지는 역동적 프로그램을 구상중이다. 재단 측은 “전시 형식을 과감히 실험해온 기획자들로 역사적 관계 맺기와 통섭적 체계를 구축해온 인물”이라고 설명했다.

“미술작가를 비롯해 서로 다른 지성으로 무장한 아티스트, 과학자, 문학자, 정치 운동가들과 초대해 협업하며 새로운 지식을 만들어내고 그 결과물들을 보여주고 싶습니다. 비엔날레가 실질적인 지식 생산의 장소가 되는 거죠. 작가들이 가진 지적인 근육, 정치적 근육을 전시로 구현하는 작업입니다. 이번 비엔날레는 ‘전 지구적 연대’라는 관점으로도 이야기하고 싶어요. 전 세계의 예술가, 과학자 등이 함께 탐구한 지식을 공유하고 연대하며 인권, 사회정의 등 다양한 전 세계적 이슈를 풀어낼 계획입니다.”(데프네 아야스)

한편 네덜란드, 중국, 러시아 세계 곳곳의 문화 기관 등에서 활동해온 데프네 아야스는 현재 모스크바 연구 및 예술작품 프로젝션을 지원하는 전시단체 V-A-C 재단 총괄큐레이터로 재직중이며 로테르담 비테 데비트 미술관 디렉터, 제56회 베니스비엔날레 터키관 큐레이터 등을 역임했다.

진발라는 현재 베를린 그로피우스 바우 미술관 협력 큐레이터로 다수의 국제전을 기획했다. 2017년 제14회 카셀도큐멘터 전시 기획 자문으로 활약했고 제8회 콩투르비엔날레 전시, 제8회 베를린비엔날레, 제56회 베니스비엔날레에도 참여했다.

한편 두 사람은 재단 이사진과 제시카 모건(뉴욕 디아트센터 디렉터), 카타오카 마미(동경 모리미술관 부관장) 등으로 구성된 국제자문위원회의 협의 과정 등을 통해 최종 후보에 올랐고 이사회 승인을 통해 선정됐다. /김미은 기자 mekim@

연극·음악·무용 있는 ‘황홀한 고백’

22~23일 목포문예회관

연극·음악·무용을 한 무대에서 즐길 수 있는 음악극 ‘황홀한 고백’(사진)이 오는 22일 오후 7시, 23일 오후 4시~7시 목포문화예술회관 공연장에서 공연된다.

이 작품은 문화창작집단 그라제, 극단 선창, 무안연극협회가 함께 제작하고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목포문화재단 지원을 받았다. 5·18광주 민주화운동을 다룬 연극 ‘푸르른 날에’와 ‘홍어’, 창극 ‘목민심사’ 각본을 맡은 정경진 작가가 각본을 쓰고 장가람 감독이 연출했다.

‘황홀한 고백’은 목포 콩나물곰국을 지키다 고독사한 어느 할머니의 장례식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진행된다. 뿔뿔이 흩어져 살아왔던 가족들이 서로를 용서하고 화해하면서 진정한 가족애를 회복해 가는 과정을 축제로 삼았다. 노파의 아들 부부와 가정은 팽개치고 노숙자로 떠돌던 부친 유달산은 장례식장에서 맞닥뜨린다. 노인문제와 가족해체 문제를 특유의 해학과 감동으로 풀어간다.

손소영(노파), 강대름(유달산) 등 원로 예술인과 지역에서 활동하는 연극인들이 출연한다. 관람료 무료. 문의 061-245-8833.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요람에서 무덤까지 한국인의 옷 맵시전

광주 비움박물관 16일부터

선조들의 숨결을 알 수 있는 다양한 민속품들을 소장하고 있는 광주 비움박물관이 봄 기획 전시를 연다.

박물관은 춘하추동 사계절에 맞춰 특정 주제의 소장품을 집중적으로 만날 수 있는 기획전을 열고 있다. 오는 16일부터 5월 11일까지 진행되는 봄 기획전은 ‘한국인의 옷 맵시’다.

‘문명 속에 숨겨진 숨 막히는 아름다움, 요람에서 무덤까지’를 주제로 4층 전시실에서 열리는 이번 기획전에서는 인간이 태어나고 죽을 때까지 통과 의례를 거치면서 입는 다양한 전통 의상을 보여준다.

주요 전시품은 무더위를 씻어주던 삼베 적삼, 모시치마, 강추위를 감싸주던 명주저고리와 두루마기, 혼례식장에서 신랑 신부



가 입던 원삼 쪽두리와 갓 태어난 아기의 베넛저고리, 상복 등 모두 300여 점이다.

전시작들은 일상의 옷이자 아름다운 예술로 되살아난 것들로 독창성과 실용성을 함께 보여준다.

전시 개막날 오후 1시에는 주홍 작가의 드로잉 퍼포먼스가 펼쳐지며 당일 하루 동안 무료로 개방한다. 문의 062-222-6668.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실례는 주말의 봄... 무료 공연이 오나 봄

실내악단 악야자 ‘연모지정의 노래’

전통문화관 16~17일

무등산 자락에 자리잡은 전통문화관(동구 윤림동)에서 무료로 국악을 즐길 수 있는 공연이 이번 주말 상춘객을 맞이한다.

광주문화재단 전통문화관은 오는 16일 오후 3시 서석당에서 ‘국내실내악단 악야자’를 초청해 토요상설공연을 연다.

‘연모지정의 노래’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무대에서는 정가(正歌)와 대금, 25현 가야금 등 연주곡을 선보인다.

여창지름시조 ‘달 밝고 서리 친 밤’, 여창 가곡 평조우락 ‘바람은 지동지듯 불고’, 25현 가야금 독주곡 ‘도라지’ 등이 이어진다.

‘국내실내악단 악야자’는 2006년 창단한 뒤 대전을 중심으로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김지현(대금·소금), 윤미애(정가), 장경진(가야금), 이관희(타악), 남지미(건반)이 출연한다. 문의 062-232-



김일구 명창

1595.

다음날에는 국가무형문화재 제8호 판소리 적벽가 준보유자 김일구 명창이 일일상설 공연 무대를 찾는다.

김명창은 이날 오후 3시 서석당에서 박봉술씨 적벽가를 선보인다. 그는 1940년 화순에서 태어나 부친인 김동문 명창 등으로부터 판소리를 배웠다. 1991년 KBS 국악대상, 1994년 문화예술대상 등을 수상했다.

이번 공연에서는 김명창의 제자인 정창진이 ‘적벽가’ 중 ‘조자룡 활쏘는 대목’을 무대에 올린다. 전국교수대회 대통령상(1995)을 수상한 조용안 명고가 고수를 맡는다. 문의 062-232-1502.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국립광주과학관 17일 ‘광주 MSG’ 피아노 연주회

국립광주과학관을 찾는 관객들을 위한 무료 연주회가 펼쳐진다.

광주과학관은 오는 17일 오후 2시 과학관 상상홀에서 봄맞이 재능기부 연주회 ‘과학관에 봄이 오나 봄’을 연다.

이날 ‘광주MSG’(Musical Social Group)가 무대에 올라 너의 손나의 손, 듀엣 연주

회라는 제목으로 피아노 연주를 선보인다.

드라마 ‘알함브라 궁전의 추억’, ‘봄의 왈츠’, 영화 ‘말할 수 없는 비밀’, ‘인어공주’ 삽입곡과 브람스의 ‘헝가리 무곡 5번’ 등 익숙한 음악들을 무대에 올린다. 문의 062-960-6124.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유네스코 세계유산의 도시 **해남**

세계유산 ‘산사, 한국의 산지 승원’ 대행사

